2016 미소 강경욱 선생의 9급 서울시 해설

1. 다음 중 표준어로만 묶인 것은?

① 끄나풀 - 새벽녘 - 삵쾡이 - 떨어먹다
② 뜯게질 - 세째 - 수평아리 - 애닯다
③ 치켜세우다 - 사글세 - 설거지 - 수캉아지
④ 보조개 - 숫양 - 광우리 - 강남콩

답) ③. [난도 중, 표준어] - 예상한 문제 유형

① 살쾡이/삵, 털어먹다
② 셋째, 애달프다
④ 광주리, 강낭콩

2. 다음 중 ㉠~㉣에 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로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빼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 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u>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u>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굽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른하지 않았다. 들으니 ㉡<u>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밑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u>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u>웬 포도를 큰 것으로 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u> 그는 벙긋거리며 첫마디로,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죠.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주었다. 포도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u>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u>

- 이태준, 「달밤」

① ㉠: 황수건의 행위를 통해 참외 장사가 안 될 것을 예측 할 수 있다.
② ㉡: 황수건에 한 정보가 나에 의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③ ㉢: 포도는 장사 밑천을 준 나에 한 황수건의 고마움의 표시이다.
④ ㉣: 인물을 바라보는 나의 호의적인 태도를 읽을 수 있다.

답) ①. [난도 하, 현대소설] - 예상한 문제 유형

참외 장사를 해보라고 준 돈 삼 원에 신나하는 황수건의 모습이다. 안 될 것이라는 예측은 옳지 않다.

미소 내공

1933년 『중앙(中央)』에 발표된 단편소설. 「달밤」은 아이러니의 기법을 사용하여 시대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소설 속의 바보스러운 주인공은 부조리한 사회 현실과 인간의 허위의식에 대해 바보의 천진성과 단순성으로 대항하고 있다.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인물의 개성적 성격 묘사를 통해 그들이 처한 암울한 삶의 실상을 객관적 시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배경이 되는 일제 식민정책의 모순을 드러낸다.
우리는 이 작품에서 지식인 화자가 무능력하고 소외된 인물에 대해 연민과 인간적 정을 느끼는 모습을 통해 인간애를 중시하는 이태준의 작가의식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그런 인물이 살아가기 어려운 냉혹한 현실의 어려움을 통해 당대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

3. 다음 중 음운변동의 성격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① 옳다는 [올타]로, 옳지는 [올치]로 발음된다.
② 주다와 어미 -어라가 만나 줘라가 되었다.
③ 막혀는 [마켜]로, 맞힌은 [마친]으로 발음된다.
④ 가다와 어미 -아서가 만나 가서가 되었다.

답) ④. [난도 하, 음운변동] - 예상한 문제 유형

'ㅏ'와 'ㅏ'가 결합해서 동음 'ㅏ'가 없어진 동음탈락현상이다.
① 'ㅎ'과 'ㄷ'이 결합해 'ㅌ'이 되고, 'ㅎ'과 'ㅈ'이 결합해 'ㅊ'이 된 축약현상이 일어났다.
② 'ㅜ'와 'ㅓ'가 결합해 'ㅝ'가 된 축약현상이다.
③ 'ㄱ'과 'ㅎ' 이 결합해 'ㅋ'이 되고, 'ㅈ'과 'ㅎ'이 결합해 'ㅊ'이 된 축약현상이 일어났다.

4.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① 그 가방에 소설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
② 넓은 들판에는 농부가 한둘 눈에 띌 뿐 한적했다.
③ 두 사람은 서로 다투다가 화해했다.
④ 보따리에서 석류가 두세 개 굴러 나왔다.

답) ②. [난도 중, 품사] - 예상한 문제 유형

'한둘'은 '하나나 둘쯤 되는 수'를 의미하는 '수사'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뒤에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다.

5. 다음 중 고유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느매기:** 물건을 여러 몫으로 나누는 일
② **비나리치다:** 갑자기 내린 비를 피하려고 허둥대다.
③ **가리사니:**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나 실마리
④ **던적스럽다:** 하는 짓이 보기에 매우 치사하고 더러운 데가 있다.

답) ②. [난도 중, 고유어] - 예상한 문제 유형

'비나리치다'는 '아첨하면서 남의 비위를 맞추다'의 뜻이다. 수업시간에 강조한 말이므로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비나리'는 '남의 환심을 사려고 아첨함'으로 수록되어 있지만 '비나리치다'라는 말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일상적으로 우리들이 '비나리치다'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시험에서는 정확한 어법을 고려해 출제해야 하므로 이 문제는 '비나리'로 출제하든지 아니면 '비나리를 치다'의 꼴로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다음 중 외래어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① 벌브(bulb), 옐로우(yellow), 플래시(flash), 워크숍(workshop)
② 알콜(alcohol), 로봇(robot), 보트(boat), 써클(circle)
③ 밸런스(balance), 도너츠(doughnut), 스위치(switch), 리더십(leadership)
④ 배지(badge), 앙코르(encore), 콘테스트(contest), 난센스 (nonsense)

답) ④. [난도 중, 외래어의 표기] - 예상한 문제 유형

① 옐로. 장음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② 알코올, 서클. 된소리는 표기하지 않는다. '알코올'은 장음을 표기하는 예외에 해당한다.
③ 도넛. 짧은 모음 다음에 어말에 오는 무성음 [t]는 받침으로 적는다. '

7. 다음은 신문 보도와 그에 한 해당 기관의 해명이다. 이에 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문보도	⑴ 유학생 등 재외국민들은 내국인과 달리 아이핀 발급이 어려움 ⑵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공공아이핀은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증, 거주여권 등으로 발급이 가능하나, 방문(PM)여권을 소지한 유학생, 주재원 등은 발급이 불가하며, 주민등록증이 있더라도 단독세대원은 공공아이핀 발급이 불가능
해명자료	⑴ 유학생, 주재원 등 방문여권 소지자는 **본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세대원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나 대리인(가족관계) 신청**으로 공공아이핀 발급이 가능하므로 공공아이핀은 해외에서도 이용이 가능 ⑵ 유학생, 주재원 등은 통상 해외이주 시 본인의 주민 등록을 부모나 친인척 주소지로 이전하기 때문에 국내 주소지가 단독세대원인 경우는 거의 없음

① 신문 보도에서, 같은 내용을 ⑴에서는 개략적으로, ⑵에서는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② 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서도 아이핀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③ 해명 자료⑴의 밑줄 친 부분은 접속 대상이 대등하지 않아 부자연스러워진 표현이다.
④ 해명 자료⑵는 단독세대원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답) ④. [난도 중, 자료 읽기] - 예상한 문제 유형

주민등록증이 있더라도 단독세대원은 공공아이핀 발급이 불가능하다라는 신문보도에 국내 주소지가 단독세대원인 유학생과 주재원을 거의 없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 즉 주민등록증이 있은 단독세대원은 거의 없으므로 공공아이핀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완전히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없다는 것은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위의 해명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8. 다음 중 단어의 발음이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① 디귿이[디그시], 홑이불[혼니불]
② 뚫는[뚤는], 밝히다[발키다]
③ 핥다[할따], 넓죽하다[넙쭉카다]
④ 흙만[흑만], 동원령[동ː원녕]

답) ①. [난도 중, 표준발음] - 예상한 문제 유형

② [뚤른]. 'ㄾ' 뒤에 'ㄴ'이 올 때는 'ㅎ'은 발음하지 않는다. 이어 유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③ [넙쭈카다]. 축약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④ [흥만].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9. 다음 중 단어의 짜임이 <보기>와 같은 것은?

<보기>

놀리- + -ㅁ
↓(파생)
손 + 놀림
↓(합성)
손놀림

① 책꽂이 ② 헛소리
③ 가리개 ④ 흔들림

답) ①. [난도 중, 단어의 성격] - 예상한 문제 유형
꽂- + -이(파생어) → 책 + 꽂이 (합성어)
② 헛- + 소리(파생어)
③ 가리- + -개(파생어)
④ 흔들 + -리(파생어) → 흔들리- + ㅁ(파생어)

10. 다음 중 괄호 안의 한자가 옳은 것은?

① 정직함이 유능함보다 **중요(仲要)**하다.
② **대중(對衆)** 앞에서 연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③ 부동산 **중개사(重介士)**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 나고 있다.
④ **집중력(集中力)**이 떨어지지 않도록 숙면을 취해야 한다.

답) ④. [난도 상, 헌자] - 예상한 문제 유형
① 중요(重要)
② 대중(大衆)
③ 중개사(仲介士)

11. 다음 중 <보기>와 작품 속 시적 배경이 같은 것은?

<보기>

오호, 여기 줄지어 누웠는 넋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눠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 바른 두메를 골라
고이 파묻어 떼마저 입혔거니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욱 너그러운 것이로다.

① 김주영의 「객주」
② 이범선의 「오발탄」
③ 박경리의 「토지」
④ 황석영의 「장길산」

답) ②. [난도 중, 현대시] - 예상한 문제 유형
구상의 '초토의 시'는 한국전쟁이 시적 배경이다. 이범선의 '오발탄'도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오발탄'은 한국전쟁이 가져온 참혹한 현실을 '철호'의 가족을 통해 드러낸 이범선의 소설이다. 이 작품은 짙은 허무주의를 바탕에 깔고, 전후의 암담한 현실을 신랄하게 고발한다. '철호'의 어머니는 고향을 그리워하다 미쳐 버리고, 동생 '영호'는 권총강도를 저지르고, 여동생 '명숙'은 양공주가 되는 등 모든 가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① 1878~1885년경 경상도 울진을 중심으로 부보상인 천봉산의 일상을 그렸다. 근대 상업자본이 형성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았으며, 19세기 생활언어를 구현하여 백성의 입장에서 바라 본 근대 역사가 흥미롭게 전개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②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한 가문의 몰락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경남 하동군 평사리와 용정, 그리고 진주와 서울 등을 배경으로 그려내고 있다. 지난 시절 우리 민족이 겪은 힘든 삶을 생생하게 그려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보편성에 대한 탐구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④ 조선 숙종조에 실재했던 인물인 장길산을 주인공으로 한 것인데, ≪숙종실록≫과 ≪추안급국안≫·≪성호사설≫ 등에 단편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장길산의 행적을 역사학계의 연구물을 길 안내 삼고 실록과 야사 등의 기록을 참고하여 소설적으로 재구한 것이다.

12. 다음 중 <보기>에 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주동문	㉠ 아이가 밥을 먹었다. ↓	㉢ 마당이 넓다. ↓
사동문	㉡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하였다.	㉣ 인부들이 마당을 넓혔다.

① ㉡, ㉣을 보니, 사동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군.
② ㉡, ㉣을 보니,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 나타날 수 있군.
③ <보기>를 보니, 동사만 사동화될 수 있군.
④ <보기>를 보니,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변화할 수 있군.

답) ③. [난도 중, 문장의 종류] - 예상한 문제 유형
'넓다'는 형용사다. 그러므로 동사만 사동화될 수 있다는 말은 옳지 않다.
① ㉡은 통사적 사동문, ㉣은 파생적 사동문에 해당한다.
② ㉡ 부사어, ㉣ 목적어로 실현되었다.
④ ㉠ 두 자리 서술어, ㉡ 세 자리 서술어, ㉢ 한 자리 서술어, ㉣ 두 자리 서술어

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늘, 바람, 심지어, 어차피, 주전자와 같은 단어들은 한자로 적을 수 없는 고유어이다.
② 학교, 공장, 도로, 자전거, 자동차와 같은 단어들은 모두 한자로도 적을 수 있는 한자어이다.
③ 고무, 담배, 가방, 빵, 냄비와 같은 단어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우리말처럼 되어 버린 귀화어이다.
④ 눈깔, 아가리, 주둥아리, 모가지, 가리와 같이 사람의 신체 부위를 점잖지 못하게 낮추어 부르는 단어들은 비어(卑語)에 속한다.

답) ①. [난도 중, 국어의 어원] - 예상한 문제 유형
'심지어(甚至於), 어차피(於此彼), 주전자(酒煎子)' 등은 한자어로 적을 수 있는 말로 한자어 계통의 단어다.

14.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 한 설명이 옳은 것은?

㉠ <u>철수 밥</u> 먹는다.
㉡ <u>그 사람이 그런 심한 말을</u> 하다니.
㉢ <u>오늘 내가 본</u> 영화는 세계 10 명화에 속한다고 한다.
㉣ <u>민한경 씨가 익명의 독지가였음</u>이 밝혀졌다.

① ㉠에서 '철수', '밥'은 단어이자 어절로서 각각 주어, 부사어 의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② ㉡에서 '그 사람이', '그런 심한 말을'은 각각 주어, 목적어 성분이 절로 실현된 것이다.
③ ㉢에서 오늘 내가 본은 관형어 기능을 하며 절로 실현되어 있다.
④ ㉣에서 '민한경 씨가 익명의 독지가였음'이는 목적어 성분으로서 명사절로 실현되어 있다.

답) ③. [난도 중, 문장의 종류] - 예상한 문제 유형
① 주어와 목적어
② '그 사람이'는 구로 절로 실현된 것이 아니다.
④ 주어 성분으로서 명사절로 실현되었다.

15.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사원 여러분, 이번 중동 진출은 이미 예산이 많이 투입된 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u>하던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u>. 이번 위기를 극복해야만 회사가 삽니다.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있어 심적으로는 불안하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끝까지 함께 갑시다.

① 登高自卑 ② 角者無齒
③ 騎虎之勢 ④ 脣亡齒寒

답) ③. [난도 중, 한자성어] - 예상한 문제 유형
騎虎之勢(기호지세):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①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오른다는 뜻으로, 일을 순서대로 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
② 뿔이 있는 짐승은 이가 없다는 뜻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재주나 복을 다 가질 수 없다는 말.
④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16. <보기>의 문학사적 사실들을 발생 순서로 배열한 것은?

<보기>
㉠ 「삼」, 「흙」, 「태평천하」 등 다양한 장편소설들이 발표되었다.
㉡ 이광수의 「무정」이 『매일신보』에 연재되어 세간의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 『창조』, 『백조』, 『폐허』 등의 동인지가 등장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민간 신문들이 발행되었다.
㉣ 『인문평론』, 『문장』 등 유수한 문학잡지들과 한 신문 등의 발행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 이인직의 「혈의 누」, 이해조의 「자유종」과 같은 소설들이 발표되었다.

① ㉡-㉤-㉠-㉢-㉣ ② ㉡-㉤-㉢-㉣-㉠
③ ㉤-㉡-㉢-㉠-㉣ ④ ㉤-㉢-㉠-㉡-㉣

답) ③. [난도 상, 현대문학사] - 예상한 문제 유형
㉤(개화기 문학) - ㉡(1910대 문학) - ㉢(1920년대 문학) - ㉠(1930년대 문학) - ㉣(1930년대 말 문학)

17. <보기>는 비치다에 한 사전의 뜻풀이이다. 다음 중 각 뜻에 한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에】 ❶빛이 나서 환하게 되다.
❷빛을 받아 모양이 나타나 보이다.
❸물체의 그림자나 영상이 나타나 보이다.
❹뜻이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다.
❺투명하거나 얇은 것을 통하여 드러나 보이다.
2 【…에/에게 …으로】 무엇으로 보이거나 인식되다.
3 【…에/에게 …을】
❶얼굴이나 눈치 따위를 잠시 또는 약간 나타내다.
❷의향을 떠보려고 슬쩍 말을 꺼내거나 의사를 넌지시 깨우쳐 주다.

① 1❶: 창문을 종이로 가렸지만 그래도 안이 **비친다.**
② 1❸: 만년설이 쌓인 산이 호수에 **비쳤다.**
③ 2: 동생에게 결혼 문제를 **비쳤더니**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다.
④ 3❶: 글씨를 흘려서 쓰면 성의 없는 사람으로 **비치기** 쉽다.

답) ②. [난도 중, 어휘] - 예상한 문제 유형

① 1 ❺투명하거나 얇은 것을 통하여 드러나 보이다.
③ 3 ❷의향을 떠보려고 슬쩍 말을 꺼내거나 의사를 넌지시 깨우쳐 주다.
④ 2 【…에/에게 …으로】 무엇으로 보이거나 인식되다.

18.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한의 제자 원리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초성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는데 'ㄱ'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② 'ㄱ, ㄴ, ㅁ, ㅅ, ㅇ' 5개의 기본 문자에 가획의 원리로 'ㅋ, ㄷ, ㅌ, ㄹ, ㅂ, ㅈ, ㅊ, ㅎ' 총 8개의 문자를 만들었다.
③ 문자의 수는 초성 10자, 중성 10자, 종성 8자로 모두 28자 이다.
④ 연서(連書)는 'ㅇ'을 이용한 것으로서 예로는 '붕'이 있다.

답) ④. [난도 중, 고전문법] - 예상한 문제 유형

① 'ㄴ'에 해당한다.[舌音ㄴ象舌附上腭之形(상설부상악지형)]
② 'ㄹ'은 설음의 이체자에 해당한다. 가획의 원리로는 'ㅋ, ㄷ, ㅌ, ㅂ, ㅍ, ㅈ, ㅊ, ㆆ, ㅎ' 총 9개의 문자를 만들었다.
③ 초성 17자

五 音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아음(牙音)	ㄱ	ㅋ	ㆁ
설음(舌音)	ㄴ	ㄷ → ㅌ	ㄹ(반설음)
순음(脣音)	ㅁ	ㅂ → ㅍ	
치음(齒音)	ㅅ	ㅈ → ㅊ	ㅿ(반치음)
후음(喉音)	ㅇ	ㆆ → ㅎ	

중성자 11자

기본자	제자 원리	초출자 (初出字)	재출자 (再出字)
·	하늘의 둥근 모양(形之圓 象乎天也) -혀를 오므림(소리가 깊음)	ㅗ, ㅏ	ㅛ, ㅑ
ㅡ	땅의 평평한 모양(形之平 象乎地也) - 혀를 조금 오므림(소리가 깊지도 얕지도 않음)	ㅜ, ㅓ	ㅠ, ㅕ
ㅣ	사람의 서 있는 모양(形之立 象乎人也) - 혀를 안 오므림(소리가 얕음)		

19.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① 대화를∨하면∨할수록∨타협점은∨커녕∨점점∨갈등만∨ 커지게∨되었다.
② 창문∨밖에∨소리가∨나서∨봤더니∨바람∨소리∨밖에∨ 들리지∨않았다.
③ 그∨만큼∨샀으면∨충분하니∨가져갈∨수∨있을만큼만∨ 상자에∨담으렴.
④ 나는∨나로∨갈∨데가∨있으니∨너는∨네가∨가고∨ 싶은∨데로∨가거라.

답) ④. [난도 중, 띄어쓰기] - 예상한 문제 유형

① 조사 '은커녕'은 붙여 써야 한다. 대화를∨하면∨할수록∨**타협점은커녕**∨점점∨갈등만∨ 커지게∨되었다.
② 조사 '밖에'는 붙여 써야 한다. 창문∨밖에∨소리가∨나서∨봤더니∨바람∨**소리밖에**∨ 들리지∨않았다.
③ 의존명사 '만큼'은 띄어 써야 한다. 그∨만큼∨샀으면∨충분하니∨가져갈∨수∨**있을∨만큼만**∨ 상자에∨담으렴.

20.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옳은 것은?

① 溫**古**知新　② 麥**秀**之嘆
③ 識**者**憂患　④ 左**考**右眄

답) ②. [난도 상, 한자] - 예상한 문제 유형

麥秀之嘆(맥수지탄):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 기자(箕子)가 은(殷)나라가 망한 뒤에도 보리만은 잘 자라는 것을 보고 한탄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① 溫**故**知新(온고지신):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
③ 識**字**憂患(식자우환): 학식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근심을 사게 됨.
④ 左**顧**右眄(좌고우면): 이쪽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앞뒤를 재고 망설임을 이르는 말.

<총평>

2013년 시험부터 서울시는 문제를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선택지도 5지 선다형에서 4지형으로 바뀌었다. 문제 공개 전에 출제되었던 황당한 문제는 이제 서울시에서 사라졌다. 그러므로 수험생은 국가직 또는 지방직을 준비하는 동일한 전략으로 서울시 시험을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서울시 문제 구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국어규범과 관련된 것이 11문항 출제되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 3문항이 증가한 것이지만 '표준어, 띄어쓰기, 품사, 합성어, 외래어 표기' 등 우리가 예상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어휘는 4문항으로 작년보다 1문제 줄었는데, 특히 '비나치리다'는 수업시간에 꼭 출제될 것이라 예상한 것이라 그리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사려된다. 작년에 3문항 출제되었던 읽기영역은 이번에 놀랍게도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원래 서울시에서 독해 비중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약간은 의외의 출제였다고 평가된다. 수험생이 정말 어렵게 생각하는 한자가 국가직과 지방직에 이어 2문항 출제되었다. 정확한 한자의 표기 그리고 한자성어의 정확한 표기를 묻는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식국어 영역으로 1문항 출제된 현대문학사의 순서를 물은 것은 수업시간에 예상한 것이었지만 혹시 이 영역을 소홀히 한 사람은 당황했을 듯싶다. 문학은 작년과 동일하게 출제되었고, 시험날짜가 6월 25일이라 그런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묻는 문제는 지식국어의 성격도 함께 갖는 문제였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에서 매년 반드시 출제되는 한자의 고비를 잘 넘긴 학생은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으로 사려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서울시 합격을 원하는 수험생은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한자는 반드시 정복해야 한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말한 방법으로 매일 한자 학습을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울러 수험생들은 출제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국어규범을 꼼꼼하게 정리해야 하며, 주요 어휘와 지식국어 영역도 평상시에 세밀하게 챙겨두는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난도에 따라 문제를 구분해 보면, 난도 상 3문항, 난도 중 15문항, 난도 하 2문항으로 분석된다. 중으로 평가되는 문제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로 그리 쉽다고 느껴진 시험은 아니었다. 상위권 학생은 85점 이상은 받아야 하고, 실수를 감안하더라도 80점 이상은 받아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으로 생각된다. 작년보다는 난도는 거의 같았지만 체감 난도는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지는 시험이었다.